

청소년 발달특성 문제에 관한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의 통합적 접근

오윤선 교수

(Ph. D., 한국성서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영성과 기독교 상담의 균형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한 통합적인 모색을 시도하는데 있다. 현대 청소년들은 빠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위기에 처해있다. 청소년기의 문제를 만들어 내는 원인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 피부문제, 과다지방, 신체구조변화, 목소리 변화 등을 통해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성적인 충동으로 당황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부모와 동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겪게 되고, 가치와 도덕과 종교에서 충동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독립의지를 통해 자유를 찾게 되고 정체감과 자존감 및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방법들을 통해서 접근해 왔지만 치료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청소년 문제는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의 통합적 접근은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영성에 대해 신학적 해석 작업과 상담 심리치료에 대한 수용 범위 설정, 그리고 임상적용 효과에 대한 연구와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이론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는 가족문제와 직결되기에 부모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기독교인의 생활양식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하는 것 또한 청소년을 치료하는데 유용 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 중요하다고 하겠다.

중심단어 : 영성, 기독교 상담, 청소년, 변화, 통합,

I. 여는 글

오늘날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끊임없는 적응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정신세계의 황폐화와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한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 청소년들 역시 학교와 가정, 그리고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도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무기력해지며 영적 침체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시대적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1980년대부터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물론 평신도들까지 영성(Spirituality)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¹⁾ 이러한 영향으로 많은 청소년 단체와 교회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 부흥과 회복을 위한 청소년 영성집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영성이라는 미명아래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신앙 프로그램이 실상은 영성의 개념도 모호하고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청소년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상담 역시도 상담기술과 영성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함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기독교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균형 있는 영성과 체계적인 상담 교육을 받은 준비된 청소년 상담자 양육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²⁾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치료와 회복을 돕기 위해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따른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영성(Spirituality)과 기독교 상담의 균형 있는 관계 형성을 위한 통합적인 모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데 기초자료를 삼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청소년의 발달심리 및 신앙발달 특성에 따른 문제이해

1) 발달심리 특성에 따른 청소년 문제이해

인간의 전 생애발달 과정 중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다.³⁾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Hesio는 “우리가 요즘의 변덕스러운 청소년들에게 의존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무분별하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조신하게 굴고 어른을 존경하도록 배웠으나, 지금의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약삭빠르고 규율을 참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나이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호감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⁴⁾

또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철학자인 Aristoteles는 기원전 300년에 “청소년들은 이미 걱정적이고 성급하며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쉬운 집단이다. 그들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든 도에 지나치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청소년의 본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했다.⁵⁾

고대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나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늘 있었기에 성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호감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청소년 문제가 집단화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음을 볼 수 있다.⁶⁾ 그 이유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인구 비례의 증가로 인한 청소년 계층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즉, 초기 산업 사회 당시에는 특정 부유층을 제외한 일반 아동들은 생산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기에 청소년기라는 단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교육기간 등의 연장으로 인하여 청소년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⁷⁾

특히 후기 산업사회 이후 청소년기는 과거보다 앞당겨졌고 시기의 연장을 더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위생조건의 개선과 좋은 영양 및 성에 대한 개방적

문화가 사춘기의 시작시기를 앞당기고, 사회가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더 긴 재학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⁸⁾

한국에서의 청소년 문제가 크게 대두 된 것은 신세대가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신세대 등장 배경은 세계적으로 탈이념의 시대가 도래 하고, 우리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문화적 소비 욕구가 새롭게 분출되면서 나온 것이다. 특히 1987년 이후 서양의 왜색문화, 개인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하면서, 상품의 소비 목적이 소비욕구의 일차적인 만족을 벗어나 정신적 소비와 서비스 소비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중 영상 매체의 조장이 이러한 신세대를 형성하게 하였으며, 대표적인 소비문화 지역에서 신세대 문화가 기성세대와 차별화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욕구와 하층계급으로부터 자신의 문화소비를 차별화 하고자 하는 중산계급의 욕구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다.⁹⁾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청소년기는 12-13세부터 시작하여 23-24세까지 청소년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 되는데¹⁰⁾ 특징과 문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양질의 영양 공급과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성장의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점이다.¹¹⁾ 이로 인해서 1970년대 중·고등학생들이 겪는 문제가 현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13세를 기준으로 볼 때 1970년대에는 남자 신장이 148.2cm 이었는데, 2007년에는 161.82cm로 13.62cm의 차이를 보였고, 여자는 148.8cm에서 157.32cm로 8.52cm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체중은 남자가 40.1kg에서 52.94kg으로 12.84kg의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는 41.0kg에서 49.87kg으로 8.87kg 차이를 보였다.¹²⁾

이러한 신체 발달로 인해 발견된 문제점으로 비만이 대두되었다. 오동재¹³⁾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55%, 남학생의 35%가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피로감, 변비, 월경불순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함을 보였다. 비만은 신체 발달 과업에 영향을 미쳐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부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하며,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는 등 심리적·정서적 발달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청소년 가운데 섭식장애와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은 음식

과 체중에 대한 강박관념을 보이는 정서장애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고, 아사병(starvation sickness) 혹은 다이어트병(dieter's disease)으로 불리기도 한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95%가 여성이고 나이는 12-18세 정도이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연령층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는 50만 명이상이 신경성 식욕부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¹⁴⁾

둘째, 청소년의 빠른 신체발달은 성 발달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0년대에 초경이 14세 8개월, 1970년에는 14세, 82년에는 12세 3개월, 2000년에 와서는 12세를 전후해서 초경을 시작하였다(9.5세-12세 중 48%이상이 초경을 경험한다).¹⁵⁾ 문제는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성을 배우기 전에 역기능적인 성을 먼저 배우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성폭력 상담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지식은 60%가 사이버상에서, 20%는 친구들을 통해서, 10%는 음란 영화나 잡지를 통해서, 그리고 10%는 학교단체의 설명회로 인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10명 중 4명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적 고민거리를 친구와 상담하는 청소년이 53.5%인 반면 부모와의 상담은 5.7%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¹⁶⁾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성적 욕구가 8배 가량 높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2배나 더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 되었다.¹⁷⁾ 무분별한 청소년들의 성행위로 미국은 1년에 100만 명 정도의 10대 미혼모가 생겨나고 있으며, 10대 미혼모는 보통 아동·청소년 보다 자살율이 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성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다.¹⁸⁾

셋째, 청소년들은 사회적 역할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동이나 성인에 비해 현저하게 다른 발달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정서는 격렬하고 쉽게 동요하는 속성이 있다. 청소년은 부모, 교사, 동료 등의 저급한 언동에 쉽게 분노하고 얼굴을 붉히며 자주 슬픔에 잠긴다. 그리고 청소년은 흔히 부푼 감정과 열등감으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동일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떤 때에는 격한 분노를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기쁨에 넘쳐서 부푼 감정을 표현하는 등 변동이 심하다.¹⁹⁾ 이러한 격심한 정서들을 그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충동적이고 탈선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부모나 교사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자살을 시도하게 한 사실이 이따금 보고 되고 있듯이, 청소년들의 정서가 격심하다는 것은 그들과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 표현은 아동기와는 달리 내면적이고, 정서가 기분과 정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정서적 발달로 기인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는 우울증, 분노감정과 폭력, 자살 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명 중 1명이 우울증상을 보이고 이 중 20%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²⁰⁾ 우울증은 21세기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 이라고 볼 수 있다. 우울증상들을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시적 방황' 이나 '심적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은데 청소년 우울증이 청소년 자살 제1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그들 스스로 자아발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 당하였을 때에 분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자기 주장의 방해, 간섭, 압박, 이유 없이 꾸중을 듣는 일, 불공평한 취급, 흥미 없는 충고, 무시당한다든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당하였을 경우에 분노가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FBI자료에 의하면 체포된 절도범의 약 40%와 폭력범의 20%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 또한 매년 증가 하는데 특별히 청소년들이 자살과 관련 있는 영화를 보거나 주위에 자살 사건이 있을 때 자살비율이 높은 것은 감정적 동요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²¹⁾

넷째, 청소년기는 특유한 사회성발달을 이룬다. 청소년들의 사회성발달은 아동기 때보다 더 확장되어 부모와의 관계형성을 넘어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고무찰흙과 같아서 거친 친구를 만나면 거칠게, 모범적인 친구를 만나면 모범적으로 주위사람들에 의해 모양이 빚어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남자아이들의 경우 인기는 대개 운동을 얼마나 잘 하는가와 관련이 있고,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성격이 얼마나 좋은가와 여러 사람을 이끄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 가운데는 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거부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거부는 아이들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남의 일에 훼방 놓거나, 비협동적일 때 일어난다. 거부된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청소년기나 성인기

에 비행을 저지르거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많다.²²⁾ 그리고 청소년 초기는 동조하는 경향이 특별히 강한 시기이다. 또래집단에서의 지위는 동조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다섯째, 자아정체성은 전 일생을 통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업이지만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며,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이다.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가일층 발달된 인지능력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아동은 아니지만, 어른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시기이며, 기존의 동일시(identification) 내용의 일부는 보유하기도 하지만, 비판을 하면서 과감하게 해체를 시도하기도 한다.²³⁾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의 형성을 위해서는 과거 개인의 참조 체제를 선택하고 현재 새롭게 내면화한 동일시 내용 및 미래 계획과 포부를 역동적으로 통합하고 재 조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이 시기 청소년들이 과거의 참조체제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일시 내용을 통합하는데 실패한다면 자아정체성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현실과 이상(사이버상)의 자아정체성 혼란의 문제이다. 청소년 가운데는 현실세계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사이버세계에서 대리 만족을 추구하다가 사이버세계를 현실세계와 혼동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현실세계보다 사이버세계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치중하여 중독되어 가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과 사이버세계 간의 괴리감을 없애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자아정체성 혼란과 관련하여 맹목적인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스타 따라잡기 열풍을 들 수 있다.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풍조에 발맞추듯 요즘 청소년들도 외모를 무척이나 중시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며 과도한 다이어트나 심지어 성형수술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이다. 아직 성장기 채 끝나지 않은 그들에게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연예인 재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많은 수가 연예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연예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입고 있는 의상

이나 악세서리 말투 등을 따라함으로 인해서 쾌감을 느낀다. 그러나 무분별한 스타 따라잡기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거나 자칫 외모만을 중시하는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²⁴⁾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소신 있게 살기보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흉내냄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2) 청소년의 신앙발달 특성에 따른 문제이해

청소년기는 신체, 성, 정서, 사회, 정체성 발달뿐만 아니라 영적발달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 신앙발달은 전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에 각 단계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전기 청소년들은 종교 철학이나 조직 신학과 같은 교리가 아닌 생활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신앙을 원한다. 전기 청소년들은 신앙을 신비로운 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거나 들은 바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기독교 핵심으로 생각할 만큼 실제적인 모습에 의의를 더 느낀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기독교인들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난 기독교적인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²⁵⁾

전기 청소년들의 특징 가운데는 자신이 독자적인 개별성을 인정받고, 성인들로부터 독립하고자 하기에 아동기때 보다 자신의 행동이나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 그리하여 인식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자 한다. 그러므로 전기 청소년들의 영혼은 말씀을 받아드리기에 적합한 옥토라고 볼 수 있다. 전기 청소년들은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반면 여러 상황에서 신앙적 회의를 느끼기도 하기에 성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삶의 모범을 보이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하는 시기이다. 전기 청소년들은 신앙적인 의구심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벗어나 무엇인가를 하도록 조연해 줄 이상적인 인물을 추구하고 있기에 이상적인 신앙적 지도자와 신앙적 모델이 요구된다고 하겠다.²⁶⁾

그리고 전기 청소년들은 신앙인으로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함으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외부봉사나 선교를 위한 지도와 프로그램 실행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겠다.²⁷⁾

둘째, 중기 청소년들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앙을 원하기에 직업이나 사회에서의 위치, 친구 관계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써의 신앙을 생각한다. 그래서 중기 청소년들은 믿음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강하기에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이다. 그런데 중기 청소년 가운데는 일시적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예로 선교에 대한 영화에 깊은 감명을 받으면 즉시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하지만 후에 보면 실제로 아프리카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진실된 소명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²⁸⁾

중기 청소년들은 기독교의 역사와 다른 사람의 구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는데, 특히 전기 청소년기에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중기 청소년 가운데는 비기독교인들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재미없는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 있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익한지에 대하여 회의를 갖기도 한다. 이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함에서 오는 신앙적 회의라고 할 수 있다.²⁹⁾ 그러므로 중기 청소년들에게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기 청소년기에는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분별하기에 그들의 전체 생활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영향을 주어야 할 시기이다.

셋째, 후기 청소년들의 영적 특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하며 하나님과 친밀관계를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될 만한 기독교 논리를 찾고자하며 믿음에 대해서 비기독교인들의 물음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줄 수 있기를 원한다.³⁰⁾ 그래서 후기 청소년기에 체계적인 성경공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³¹⁾ 그리고 후기 청소년들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무엇인가 봉사를 하기를 원하기에 구체적인 인도를 통해서 봉사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기독교 영성의 이해

오늘날 비종교인들에게도 보편화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성(Spirituality)이란 말은 Riez 지방의 감독이었던 Faustus가 “영성의 발전을 위하여 행동하라(Age ut in spiritualitate proficias)”는 말을 하는데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²⁾ 그가 사용한 spiritualitate라는 의미는 사도바울이 말하는 성령을 따르라(갈 5:16-18)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9세기에 Fulda(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던 곳)의 수도사인 Candidus는 spitualitas(영성)를 corporalitas(육체성) 또는 materialitas(물질성)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영성이 육체성과 물질성과 대립되는 용어 사용의 전초가 되었다.³³⁾

Thomas Aquinas(1225-1227)는 처음에 “성령을 따르라”는 의미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후반에 가서는 Candidus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이 굳어져서 중세기에는 영성이라는 개념이 주로 성직자들 또는 특별한 종교인들, 소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특성을 영성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프랑스에서는 spiritualite(영성)이 경건한 종교적 삶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Madame Guyon과 그의 제자인 Fenelon이 Quietism(정적중의)라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 운동을 la nouvelle spiritualite(신 영성운동)이라고 지칭했다. 당시 Voltaire등은 이들이 사용하는 영성이라는 말을 비난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독일에서는 수도원주의가 크게 쇠퇴하였고, 개신교에서는 수도원 또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성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서 잘 사용되지 않다가 20세기에 와서 다시 영성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1930년대 및 40년대에 프랑스의 파리 카톨릭협회(Institut Catholique de Paris)에서 Etienne Gilson이 “영성의 신학과 역사”(Theologie et histoire de la spiritualite)라는 강의를 하면서 영성이라는 말이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그 영향으로 영어권에서 영성(Spirituality)이라는 용어 사용이 점차 확산 되었다.³⁴⁾

우리나라에서 영성에 대한 이해는 가톨릭과 개신교간에 차이를 보여 왔다. 가톨릭에서는 영성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으나 개신교에서는 영성에 대한 부정적 의미 즉, 열정주의 또는 신비주의, 수도원주의와 연관시켜왔기에 영성 대신 경건(piety), 헌신(devotion), 완성(perfection)이란 말을 사용하였다.³⁵⁾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개신교에서도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에 관한 서적도 출판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개신교의 신학 제 분야에서 영성에 대한 연구가 신학적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오늘날 영성이란 용어는 좁게는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에 대응되는 정신적 차원의 세계를 지칭하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기독교적 삶’을 가리키는 말로써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성에 대한 정의 또한 매우 다양하기에 한 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Gerald May는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내주 하시는 성령에 의해 가능해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³⁶⁾ 그리고 Ben C. Johnson은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조정되고 형성되어, 자신의 궁극적인 목회를 위해 일하는 그 시대, 그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으며, Urban T. Holmes는 “영성은 초월적인 실재와 인간의 관계성”이라고 하였고, Norman Schawchuck는 “예수님과 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영성이란 ‘초월적인 실재인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성이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³⁷⁾ Downey는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 “기독교 영성이란 교회라는 신앙공동체 안에 존재하시며 활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바 된 하나님에 궁극적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영성”이라고 하였다.³⁸⁾

결국 기독교 영성이란 일반 영성과 달리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가능해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하며, 하나님과 좀 더 깊고 밀접한 관계로 나가는 영적 성장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품성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르게 되면서 온전해져 가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된 행동보다도 변화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William James가 말한 것처럼 변화된 마음은 변화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 영성체험에는 인간성품의 변화와 윤리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³⁹⁾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인간다움이 덜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는 더욱 더 인간다워지고 더욱 더 진실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⁰⁾

최근 영성의 구체적 실용방안에 있어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로는 영성지도(Spiritual Direction)가 있다. 영성지도와 유사한 용어로는 영적인도(Spiritual Guidance), 영적친구(Spiritual Friendship), 영혼의 친구(Soul Friend), 영적동반(Spiritual Companion), 영혼의 의사(Soul Physician) 또는 영적 가르침(Spiritual Mentoring) 등으로 시대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게 불리워 왔다.⁴¹⁾ 영성지도의 핵심에 대해서 Shaun S. McCarty는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준 사역이다”라고 하였고,⁴²⁾ William A. Barry와 William J. Connolly는 영성지도의 핵심이 “종교적 경험,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는 신비한 타자의 경험”이라고 주장한다.⁴³⁾ 영성지도를 개신교의 목회적 보살핌(pastoral care)에 도입한 Stairs는 영성지도의 핵심이 “하나님과 관계를 개발하고 자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⁴⁴⁾ 그러므로 영성지도는 내담자 혹은 공동체가 일상생활에서 임재하는 하나님 혹은 성령을 지각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시키고 그 관계를 실천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영성지도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지속되고 중요시 되어왔던 목회의 중요한 한 도구였음을 볼 수 있다.⁴⁵⁾ 영성지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각 시대마다 영성지도에 관한 강조와 언급이 이어져 왔다. 초대 교부 Augustinus(354-430)는 “지도자가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St. Basil (330-379)은 “누군가 자신은 영성지도가 필요 없다고 믿는다면 큰 교만에 빠진 사람이다”라고 선언했고, St. Gregory of Nazianzen(330-387)는 “영성지도는 가장 위대한 과학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성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Jerome(340-420)은 “지도자가 없이는 혼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나가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더 나아가 16세기의 신비가였던 St. John of the Cross(1541-1591)는 “지도자 없이 혼자인 영혼은

비록 그가 의롭더라도 마치 외롭게 불타고 있는 한 개의 조개탄과도 같다. 금새 식어버리고 말 것이다” 고 강조했다.⁴⁶⁾

영성지도는 과거 사막의 교부시대로부터 중세까지 상당히 성행하였지만, 중세 후반 이후에는 예수회 등 가톨릭의 극히 일부에서만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70년대부터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80-90년대에 와서는 기독교 신앙공동체에서 영성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첫째로 교회공동체를 포함하여 현대 사회에 정신병리와 심리적 갈등이 만연해 있고 이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심리치료나 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이 방법들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지나치게 정신분석을 위시한 세속적인 심리학에만 편향되어 있었음을 자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교회 안의 전통 속에서 영성지도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치유와 성숙의 가능성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둘째로, 현대는 삶의 공허함과 고독을 심각하게 겪는 시대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느낌과 경험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체험의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의 다중화, 기계화, 정보화 등이 인간의 고립과 고독을 가중시켜 결국 교회 안에서조차 영적 갈급과 공허함에 허덕이게 되며, 이를 채워 줄 영적 체험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세기 말부터 영성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영적 성장, 영성 훈련, 영성지도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룬 책과 세미나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런 현상들은 결국 갈수록 심화되는 영적 갈급과 인간 존재의 공허함, 비인간화의 병폐,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는 불안감과 병리현상들을 어떻게 교회가 치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과 책임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⁴⁷⁾ 하지만 영성지도는 신학적 평가와 조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여지가 있기에 복음주의 신앙적 입장을 지키면서 좋은 점은 흡수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3. 영성에 대한 심리적 이해

미국상담협회(America Counseling Association)에 속한 상담자들의 가치 조사에서 85%가 영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있어서 종교와 영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⁴⁸⁾

이는 지난 20-30년간 정신분석을 필두로 하여 인지행동요법, 인본주의 심리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이 쏟아져 나왔으나 어느 것 하나 만족할 만한 임상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기법들에 깊이 의존해 왔던 목회상담 분야 역시 인간정신의 치유와 성숙에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심리요법적인 방법들이 한계에 봉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부터 인간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심리학에서 출발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심리학은 20세기와 더불어 그 전 시대의 신학과 철학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인간의 영혼의 존재와 영적 체험을 애써 부인하고 이를 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근 들어 이제까지 심리학에서 제외되어 온 주관적인 체험을 연구대상으로 삼자는 제3의 심리학도 영혼, 영적 체험이라는 개념 대신 value, self-actualization이라는 개념을 중시하였으며, Viktor Frankl조차도 meaning of life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영혼의 존재와 중요성을 비껴 지나갔다. 인간존재의 핵심은 영(spirit)임에 불구하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정신의 중심을 ego 또는 self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인간의 초월적 요소인 영성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하게 된 것이다. 특히 모든 문제들을 심리적인 것으로 보는 심리적 환원주의자들은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해왔다.⁴⁹⁾ 대표적으로 Sigmund Freud는 종교를 인류의 우주적인 강박증적 신경증, 그리고 유아신경증에 비유하면서 심한 심리-환원주의적 견지에서 보았다. Erich Fromm은 Sigmund Freud보다 덜 환원주의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의 저서 『정신분석과 종교』에서 심리학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함을 강조한다.⁵⁰⁾

반면에 Carl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를 통한 자아실현, Abraham Maslow의 절정경험을 통한 자아실현, Robert Assagioli의 보다 높은 자아실현, Gerald G. May의 명상심리학(Contemplative Psychology), Howard Clinebell의 영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초인격 심리학적 접근 등은 영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런 이론들은 심리학과 영성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기독교 영성의 폭넓은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⁵¹⁾

하지만 기독교 영성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처음부터 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⁵²⁾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심리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다룰 수 있어도 기독교

에서 말하는 계시된 하나님을 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⁵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심리학은 인간 조건의 분석에 있어서 자기혐오나 자기존중의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런 통찰력은 바람직한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⁴⁾ 그리고 경계선 인격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학적 도움을 통하여 심리구조를 설명해주거나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서 올바른 영성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⁵⁵⁾ 물론 영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 심리학의 한계는 분명히 지적해야하나, 영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자존감의 문제를 분석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심리학의 도움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⁵⁶⁾

4. 청소년 발달특성 문제에 관한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의 통합적 접근

1)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의 통합적 모색

Robert Doran⁵⁷⁾은 기독교 영성과 심리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피해야 할 극단적인 두 가지 입장을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입장은 영성을 심리학으로 환원시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영적인 경험은 단지 어떤 심리적인 기제(psychological mechanism)가 되고 만다. 이러한 극단적인 입장은 바로 심리적 환원주의(psychological reductionism)에 의해 주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이 보여주는 실수는 영성과 심리학을 분리시킴으로써 영성은 인간의 활동에서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이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과 심리적인 영역을 서로 관계없는 것으로 제한시키는 영적 환원주의의 입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여겨진다.⁵⁸⁾

Len Sperry⁵⁹⁾는 기독교 상담심리와 영성지도는 분리가 아닌 통합을 추구함이 시대적 과제라고 하였는데,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긍정의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는 새로운 분야와 그것이 강조하는 미덕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사회심리학과 상담심리학 그리고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점차 수용하고 있기에 기독교 상담자와 영성 지도자는 심리학의 새로운 동향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보다 통합적 실재를 이끌어 낼 것

이다. 둘째, 기독교 상담심리와 영성지도에서 도덕적 및 영적 영역과 심리 영역의 통합을 옹호하는 예언자적 목소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셋째, 잠재적인 내담자들이나 현재의 내담자들은 심리 치료사, 기독교 상담사, 영성지도자를 포함하는 임상가들이 실제에서 심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영적 및 도덕적 문제까지도 다루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 넷째, 가까운 미래는 기독교 상담심리와 영성지도에 일대일의 만남보다는 집단 환경이 제공되면서 집단 환경에서는 영성지도가 더 보편화 될 것이다. 다섯째, 계속되는 기독교 상담심리와 영성지도의 이론적 발전은 두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기독교 상담심리와 영성지도의 목표는 전인적인 인간 성숙을 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둘 다 인간의 의식(consciousness)을 확장하는 작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개인적인 체험과 대상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이 양자는 우리 인간 존재가 수평과 수직 모두의 관계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상호 보완적이 되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한가지만으로는 온전한 치료와 성숙을 이루는데 부족하기에 심리치료를 보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원래의 전통에서 있는 영성지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사람들이 치료-영성의 통합의 시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뭔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거나 변형된 방법을 찾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이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 가운데는 심리치료와 영성지도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과 치유자가 매 순간 순간 마음을 열고 치유받자의 마음의 자연스런 흐름을 따라가면서 두 방법을 넘나드는 통합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겠다. 두 경우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후자 쪽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인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특히 우리의 정신(심리)과 영(혼)은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연속체-정신영적 연속체(psychospiritual continuum)이기 때문이다. 이는 치유받는 자의 모든 표현 속에는 심리적 경험(psychological experience)과 영적 경험(spiritual experience) 모두가 들어 있으며 이 양자를 따로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다룰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방법을 넘나드는 통합기법은 상당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치료-성숙의 장애에 대한 주도는 그 분이 영이시기에 치유의 과정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⁶⁰⁾

2) 청소년 발달특성 문제에 대한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의 통합적 접근

청소년기는 인생주기 가운데 가장 극심한 변화기를 맞이하기에 발달적 위기(Developmental crisis)와 상황적 위기(Situational Accidental Crisis)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적 문제에 대해서 일반학자들은 신체 및 심리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고, 이에 반하여 교회에서는 영적인 방법만을 중시해오고 있음을 본다. 하지만 인간은 삶의 한 영역에서 느끼고 반응했던 방식이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기에 전인적인 이해와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겠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심리 및 영적발달 부적응으로 인해 열등감, 영적흑암, 폭력, 가출, 우울증, 품행장애, 불안장애, 성적 유혹, 또래집단, 외로움, 균형 잃은 정서, 가정문제 등 긴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를 상담심리 치료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1980년부터 논의되면서 서구에서는 동양종교, 초월심리학, 신비주의 등과 같은 다른 대용물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주의적 내지는 뉴에이지적인 시도들 역시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다양한 역동 속에서 주어진 발달적 특성에 따른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는 상담심리치료와 수직적으로는 영성지도를 통합적으로 접근함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상담심리 치료와 영성지도를 청소년문제 해결에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선결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기도훈련이다. 상담심리 치료와 영성지도가 한 사람의 치유자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장 안에서 기도로 가득 찬 공간(prayerful space)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치료자는 상담사이면서 영성지도자로서 의식의 지평을 하나님을 향하여 상담현장에 하나님의 영을 계속적으로 초대하면서 내담자의 역동을 바라보는 동시적 작업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⁶¹⁾

청소년을 위한 영적지도와 상담치료를 통합적으로 접근 할 때 주지해야 할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을 정립하도록 돕는 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⁶²⁾ 그리고 치료자는 청소년 내담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조력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성을 유지해야 하며,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위한 전인적 접근이 실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 내담자를 위한 영적지도 및 상담치료의 통합적 접근은 단순한 치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인 변화, 성장, 성숙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헌신 그리고 재생산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데 있기 때문이다.⁶³⁾ 그러므로 청소년 발달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자가 영성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는 내적훈련으로 묵상훈련⁶⁴⁾과 기도훈련⁶⁵⁾ 그리고 금식훈련, 성경연구훈련 등이 필요하고, 외적으로는 청빈⁶⁶⁾ 및 고독훈련과 순종과 섬김 훈련, 공동체를 위해서는 고백, 예배, 나눔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⁶⁷⁾ 전인적 존재인 청소년들의 발달적 문제를 단순하게 심리 행동적 입장에서 진단하고 치료를 한다면 일시적인 치료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치료자가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건전한 영성과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준비하여 청소년 내담자를 돕게 될 때 자아 성숙은 물론 영적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달는 글

청소년들은 무한한 에너지로 뭉쳐진 존재인 동시에 자신이 극복해야 할 발달특성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압력과 발달 과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순기능으로 해결될 때는 기회와 창조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문제를 방치하여 역기능적인 상황이 주어질 때는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심리치료이론과 실제방법들을 통해서 청소년의 발달문제를 접근해 왔지만 치료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발달문제로 인한 폐해는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여러 심리적 방법의 한계

를 극복해보고자 최근 구미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영성지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구미에서 성인들을 위한 영성지도와 상담심리치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에 비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접근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하겠다.⁶⁸⁾ 영적 전쟁의 마지막 시대(The Last Era of Spiritual Warfare)를 맞이하여 어느 발달주기보다 신체, 정신,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성지도와 상담치료를 위한 통합적 접근은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는 상담심리 치료와 영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심리학적 환원주의나 영적환원주의는 시대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영성에 대해 신학적 해석 작업과 상담심리치료에 대한 수용범위 설정, 그리고 임상적용 효과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이론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경림. 『영성과 경건』. 서울: CLC, 1999.
- 강연정. “전인건강과 영성상담.” 『기독상담학회지』 제11권 (2006), 26-28.
- 강준만. 『대중문화의 겉과 속』.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0.
- 김의식 외. 『일반상담과 목회상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김홍근. 『심층심리와 기독교 영성』. 서울: CLC, 2004.
- 박노권. “기독교 영성과 융의 개성화이론에 대한 비교연구.” 『신학사상』 제13권 (2007), 14-18.
- _____. “프로이드의 종교이해.” 『종교심리학』. 대전: 목원대학교출판부, 2000.
- _____. “기독교 영성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4권 (2002), 4-13.
- 반신환. “기독교 영성과 관점으로 살펴보는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 『기독상담학회지』 제7권 (2004), 58-61.
- 오동재. 『청소년 비만탈출 프로젝트』. 서울: 북드림, 2008.
- 오윤선.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예영B&P, 2007.
- _____. 『청소년 이젠 이해할 수 있다』. 서울: 예영B&P, 2008.
- 오치선. 『청소년지도학』. 서울: 학지사, 1999.
- 이만홍. “기독교 상담학의 오늘과 내일” 『한국정신치료연구원 10주년 기념회지』 (2008), 14-15.
- _____. 『영성치유』. 서울: 한국영성치유연구소, 2006.
- 이승재. 『기독교 청소년 상담 지도서』. 서울: 은혜출판사, 1995.
- 정신간호학회.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 (2006), 308-312.
-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3.
- 정용석 외. 『기독교 영성의 역사』. 서울: 은성, 1997.
- 최영민. “기독상담에서 종교성과 영성의 평가.” 『기독상담학회지』 제3권 (2001), 148.
- 최해림. “상담에서 영성의 문제.” 『심리치료와 영성』 창간호 (2002.1), 5-8.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보고서.” 2008.
- 한상철. 『청소년문제행동』. 서울: 학지사, 2003.

- 허혜경, 김혜수.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2.
- Adams, Dan P. *The Person: An Introduction to Personality Psych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4.
- Barna, George. *Generation Next*. Ventura, Calif: Regal, 1995.
- Barry, William A, and Connolly, William J. *The Practice of Spiritual Direction*. New York: Harper Collins, 1983.
- Benner, David G. *Care of Souls: Revisioning Christian Nurture and Counsel*.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 _____. *Care of Souls*. Michigan: Baker Books, 2000.
- Brunk Ada & Metzler Ethel, *The Christian Nurture of Youth*, Scottsdale, Pa: Herald, 1975.
- Donald Capps. *Deadly Sins and Saving Virtu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Doran, Robert. "Jungian Psychology and Christian Spirituality: III." Review for *Religious* 38 (1979): 858.
- Downey, Michael.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New Jersey: Paulist Press, 1997.
- Dunkin, Michael J. & Biddle, Bruce J. *The Study of Teaching*.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84.
- Foster, Richard J. 『영적 성장을 위한 제훈련』, 보이스사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85.
- Freke, Timothy. *Encyclopedia of Spirituality*. New York: Sterling Publishing, 2000.
- Holt, Bradley P. *Thirsty for God*. Pennsylvania: Auguburg Fortress, 1993.
- Jaffe, Michael L. *Adolesce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8.
- James, William.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Bantam, 1950.
- Johson, W. B. & Ridley, C. R. "Sources of faith in christi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0 (1992), 159-175.
- Kelly, E. W.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counseling psychotherapy*. VA: 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1995.
- Keniston, Katz K. Youth: a new stage of Life. *American Scholar* 39. 1970.
- Laurence steinberg & Jay Belsky. *Infancy, Childhood & Adolescence: Development in Context*. New York: Mc Graw-Hill, Inc, 1991.

- Len Sperry, *Transforming Self and Community*. Collegeville,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02.
- Marilyn A. Ganje-Fling & Patricia Mc Carthy. "Impact of childhood sexual abuse on client spiritual development: Counseling im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1996): 253-58.
- May, Gerald. *Will and Spirit: A Contemplative Psychology*. San Francisco: Harper, 1982.
- McCarty, Shaun S. "Basics in Spiritual Direction," in *Handbook of Spirituality for Ministers*. New York: Paulist, 1995.
- Muuss Rolf E, *Theories of Adolescence*. New York: Random House, 1975.
- Nederhood, J. H. *The Church's Mission to the Educated American*. Grand Rapids: Eerdmans, 1970.
- Prout, Thompson H. & Brown, Douglas T.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07.
- Richards, Lawrence O.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75.
- Rieff, Phillip. *The Triumph of the Therapeutic*. New York: Harper & Row, 1966.
- Seely, Edward D. *Teaching Early Adolescents Creativel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8.
- Stairs, Jean. *Listening for the Soul: Pastoral Care and Spiritual Direction*. Minneapolis: Fortress, 2000.
- Vernon, Ann. *Children & Adolescent*. Denver, Colorado: Love Publishing Company, 2004.
- Wimberly, Edward P. *Prayer in Pastoral Counsel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 _____. *Using Scripture in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 Yaconelli, Mark. *growing souls*. London: Great Britain, 2007.

[후 주]

- 1) 최해림, “상담에서 영성의 문제”, 『심리치료와 영성』 창간호(2002.1): 5-8.
- 2) David Benner, *Care of Souls: Revisioning Christian Nurture and Counsel*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87-89.
- 3) Rebecca Steffoff, *Adolescence*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78), 4-9.
- 4) 오윤선,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예영B&P, 2007), 19-20.
- 5) Rolf E. Muuss, *Theories of Adolescence* (New York: Random House, 1975), 11-33.
- 6) Thompson H. Prout & Douglas T. Brow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07), 2-4.
- 7)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3), 27-35.
- 8) Dan P. McAdams, *The Person: An Introduction to Personality Psych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4), 767.
- 9) 오치선, 『청소년지도학』 (서울: 학지사, 1999), 3-10.
- 10) Katz K, Keniston, Youth: a new stage of Life. *American Scholar* 39(1970), 639-641.
- 11) Laurence steinberg & Jay Belsky, *Infancy, Childhood & Adolescence: Development in Context* (New York: McGraw-Hill, Inc, 1991), 435.
- 12)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8), 120-123
- 13) 오동재, 『청소년 비만탈출 프로젝트』 (서울: 북드림, 2008), 23-35.
- 14) 한상철, 『청소년문제행동』 (서울: 학지사, 2003), 99-105.
- 15) 허혜경, 김혜수,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2), 35-39.
- 16) 한국성폭력상담소, “200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보고서” (2008), 5-24.
- 17) 오윤선, 『청소년 이해할 수 있다』 (서울: 예영B&P, 2008), 56-60.
- 18) 오윤선, 136-140.
- 19) Ann Vernon, *Children & Adolescents* (Denver, Colorado: Love Publishing Company, 2004), 19-21.
- 20) 정신간호학회,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2006, 3): 308-312.
- 21) Michael L. Jaffe, *Adolesce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8), 73-85.
- 22) Donald Capps, *Deadly Sins and Saving Virtu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51.

- 23) 강준만, 『대중문화의 겉과 속』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0), 81-82.
- 24) Michael J. Dunkin & Bruce J. Biddle, *The Study of Teaching*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84), 134-135.
- 25) Edward D. Seely, *Teaching Early Adolescents Creatively* (Philadelphia: Westminster, 1978), 100-103.
- 26) 이승재, 『기독교 청소년 상담 지도서』 (서울: 은혜출판사, 1995), 46-50.
- 27) Ada Brunk & Ethel Metzler, *The Christian Nurture of Youth* (Scottsdale, Pa: Herald, 1975), 44.
- 28) Lawrence O. Richards, *A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Zondervan, 1975), 84-85.
- 29) J. H. Nederhood, *The Church's Mission to the Educated American* (Grand Rapids: Eerdmans, 1970), 55.
- 30) George Barna, *Generation Next* (Ventura, Calif: Regal, 1995), 75.
- 31) 정용석 외, 『기독교 영성의 역사』 (서울: 은성, 1997), 23.
- 32) 정용석 외, 24-25.
- 33) 강경림, 『영성과 경건』 (서울: CLC, 1999), 235-267.
- 34) Gerald May, *Will and Spirit: A Contemplative Psychology* (San Francisco: Harper, 1982), 33.
- 35) 김홍근, 『심층심리와 기독교 영성』 (서울: CLC, 2004), 27.
- 36) Downey, Michael,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New Jersey: Paulist Press, 1997), 32.
- 37)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Bantam, 1950), 32-37.
- 38) 박노권, “기독교 영성과 용의 개성화 이론에 대한 비교연구” 『신학사상』 제136권 (2007): 14-18.
- 39) Timothy Freke, *Encyclopedia of Spirituality* (New York: Sterling Publishing, 2000), 22-23.
- 40) Shaun S. McCarty, “Basics in Spiritual Direction,” in *Handbook of Spirituality for Ministers* (New York: Paulist, 1995), 58.
- 41) William A. Barry and William J. Connolly, *The Practice of Spiritual Direction* (New

- York: Harper Collins, 1983), 8.
- 42) Jean Stairs, *Listening for the Soul: Pastoral Care and Spiritual Direction* (Minneapolis: Fortress, 2000), 189.
- 43) Len Sperry, *Transforming Self and Community* (Collegeville,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02), 10-11.
- 44) Bradley P. Holt, *Thirsty for God* (Pennsylvania: Augsburg Fortress, 1993), 13-32.
- 45) 이만홍, 『영성치유』 (서울: 한국영성치유연구소, 2006), 9-10.
- 46) E. W. Kelly,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counseling psychotherapy* (VA: 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1995), 15-29; W. B. Johson & C. R. Ridley, "Sources of faith in christia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992(20), 159-175.
- 47) 이만홍, 15-19.
- 48) 박노권, "프로이드의 종교이해," 『종교심리학』 (대전: 목원대학교출판부, 2000), 31-33.
- 49) Phillip Rieff, *The Triumph of the Therapeutic* (New York: Harper & Row, 1966) 91.
- 50) Marilyn A. Ganje-Fling & Patricia McCarthy, "Impact of childhood sexual abuse on client spiritual development: Counseling im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1996): 253-58.
- 51) Robert Doran, "Jungian Psychology and Christian Spirituality: III," *Review for Religious* 38(1979): 858.
- 52) 최영민 "기독교상담에서 종교성과 영성의 평가," 『기독교상담학회지』 제3권 (2001, 12): 148.
- 53) Marilyn A. Ganje-Fling & Patricia McCarthy, "Impact of childhood sexual abuse on client spiritual development: Counseling im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1996): 253-58.
- 54) 박노권, "기독교 영성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4권 (2002): 4-13.
- 55) Robert Doran, "Jungian Psychology and Christian Spirituality: III", *Review for Religious* 38(1979), 857-866.
- 56) David G. Benner, *Care of Souls* (Michigan: Baker Books, 2000), 69-70.

- 57) Len Sperry, *Transforming Self and Community* (Collegeville,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02), 175-180.
- 58) 이만홍, “기독교상담학의 오늘과 내일” 「한국정신치료연구원 10주년 기념회지」 (2008): 14-15.
- 59) 이만홍, 14-15.
- 60) 반신환, “기독교 영성과 관점으로 살펴보는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기독교상담학회지」 제7권(2004): 58-61.
- 61) 강연정, “전인건강과 영성상담” 「기독교상담학회지」 제11권 (2006): 26-28.
- 62) Richard J. Foster “Celebration of Discipline”, 보이스사 편집부 역, 『영적 성장을 위한 제훈련』 (서울: 보이스사, 1985), 7.
- 63) Edward P. Wimberly, *Prayer in Pastoral Counseli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k Press, 1990), 15.
- 64) Edward P. Wimberly,, *Using Scripture in Pastoral Counseling* (Nashivill: Abingdon Press, 1994), 58.
- 65) 김의식 외, 『일반상담과 목회상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198-205.
- 66) Mark Yaconelli, *growing souls* (London: Great Britain, 2007), 19-58.

【Abstract】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Spirituality and
Christian Counseling for adolescence

Yoonsun Oh

(Ph. D., 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ion of Spirituality and Christian Counseling for development problems in adolescence. Adolescent society changes quickly and most adults find themselves out of touch with contemporary teenagers. In spite of the changes and create problems for adolescents regardless of times in which they live. The growth spurt, skin problems, excess fat, changes in body hair, lowering of voice pitch, and other physical changes can each influence Adolescent psychologically. Even when they are expecting the sexual changes of adolescence, most adolescence experience anxiety over the physical changes in their bodies, the increasing erotic impulses within, and the confusion about sexual behavior.

adolescence is a time when there are changes in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s, and others in society. Prior to adolescence, the young person may accept parental standards with little question or challenge. adolescence, as we have seen, is a period of growth into maturity. limitation of dynamic and other schools of Counseling in it's application to current christian counseling practice and suggested for adolescence. Therefore, the Integration of Spirituality and Christian Counseling by the author, should be developed further theologically and technically. At times, these parental attitudes are really a cover for underlying insecurity and anxiety. Counseling in these areas could be helpful, but there is also value in helping parents grow spiritually, develop biblical values, and live a consistent Christian lifestyle. This Kind of

counseling benefits both the parents and the family members who are helped indirectly.

Key word : Spirituality, Christian Counseling, adolescence, changes,
Integration